

시한부 생명 살려낸 아름다운 기증

김영숙 불자 조건 없는 간 기증 '보살행' 화제 간경화 말기 50대 2명 간이식 받고 회복 중

40대 주부의 조건 없는 간 기증
이 말기 간경화로 하루하루를 넘기
기 힘든 시한부 환자 2명의 생명을
살려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말기 간경화를
앓고 있던 환자에게 선했 본인의
간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김영
숙(43·부산 덕천2동) 보살.

김영숙 보살은 자신의 언니 김인
숙(48·충북 제천시)의 한국불교보
사대학 동기의 남편 이갑영(52·경
남 사천)씨가 간경화 말기 상태에
빠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기증을 하기로 결
정했다. 이갑영씨는 혈액형이 A형
으로 가족 중에서는 간을 기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씨에게 간을 기증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김영숙씨
는 이갑영씨와 비슷한 처지에 간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죽
음만 기다리고 있는 강윤석씨를 발
견했다. 김 보살은 수술을 시행할
서울아산병원 이승규 교수팀에게
이씨와 강씨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의료진은 혈액형 조건상 김 보살
의 간을 강윤석씨에게, 강윤석씨의
아들 간 일부를 이갑영씨에게 기증
하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 보살
을 비롯한 가족들이 흔쾌히 승낙해
8월 15일 4명의 환자(김영숙, 강윤
석, 강윤석씨 아들, 이갑영)를 동시
에 수술하게 된 것.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4명의 환자들은 현재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초 간암과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은 강윤석(50·경남 창
원)씨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으
로 대학생인 아들 준영(22)군이 간
기증을 희망했으나 혈액형이 일치
하지 않아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
던 중이었다.

특히 강씨는 1남 1녀를 둔 가장
으로 국내에서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2년 전 중국으로 원정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출국한 적도 있
었지만, 중국에서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수 천만 원의 돈만 버리고 눈
물을 머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강씨 가족은 치료비
때문에 결국 네 식구가 79㎡(23평)
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8월 1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교환 간이식 수술을 하루 앞두고 기증자와 수혜자가 함께 모여 서로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영씨, 강준영군(이씨에게 간을 기증한 강씨의 아들), 김영숙씨(강씨에게 간을 기증한 주인공), 강윤석씨.

당초 김 보살에게 처음 간을 기증
받기로 되어 있던 이갑영씨 또한
2005년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고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지만
1남 2녀인 자녀들과 형제들이 혈액
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간염보균자
등 간 기증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로 간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
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보살이 불교법사대
학에 다니던 친언니로부터 소식을
우연히 듣고 장기기증을 결심한 것
이다. 이와 관련, 김 보살은 “뇌졸
중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지켜보
면서 불자로서 평소 장기기증의 고
귀한 정신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말에 처음
에는 많이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순
수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격려
해 준 두 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2명의 기증자 간을 서로 상대편
가족의 환자에게 동시에 이식해주
는 초고난도 교환 간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 이승규 교수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교환 간이식을 통해
2명의 말기 간경화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의 발전된
형태인 교환 간이식 수술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 이승규 교수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수술 방
법. 교수급 의료진 10여 명을 포함
의료진 6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
모 수술로 수혜자와 기증자 각각 2
명씩 총 4명에 소요되는 수술 시간
만도 50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 소식을 제보한 석순희(50·서

울 구산동) 보살은 “아무런 댓가도
없이 간 기증이란 보살행을 실천한
친구 여동생을 보는 순간 너무 아
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에 부처님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수술후 일을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김영숙 보
살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있
으면 한다”고 말했다.

(010)7766-4848, 후원계좌 신한
(김영숙) 09011-13-069596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환경과 우리 삶은 하나입니다”

불광사 환경석학 초청 강좌 개최

서울 불광사(회주 지황)가 생명·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환경강
좌를 개최한다. ‘환경과 생명-죽음
살림·살음살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9월 17일~10월 22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9월 17일 서울대 수의학과 우
희종 교수의 ‘생명과 생명체 그리
고 관계성’ ▲9월 24일 우석훈 금

용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넓게 생
각하고 좁게 살기’ ▲10월 1일 안
병수 후발식품건강연구소의 ‘식생
활이 살아야 건강이 산다’ ▲10월
15일 황대권 생태운동공동체 대표
‘생명평화와 나’ ▲10월 22일 유정
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생태적 깨
달음과 실천’ 강연이 진행된다.
(02)417-2551 노덕현 기자



환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 동국대학교 총장 백성욱 박사

백성욱 박사는 키가 9척 장
신에 몸이 비대하고 머리가 등
글고 큰데다가 미간에 붉은 점
이 있어 누구나 부처님 화신으
로 생각하였다. 서울 연지동 백
운기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1901년 곤동학교에 입학, 서숙
에서 한문을 수학한 뒤 1910년
봉곡사 최하응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1919년 경성불교중앙학원을
나와 3·1 운동 때 상해 임시정부
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0년 프랑스 보배학교에서 독
일어를 공부하고, 1922년 독일
벨츠브룩대학에 들어가 고대희
랍어와 독일 신화사 및 문명사
를 공부하고 천주교 의식을 연
구하여 1925년 10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8년 9월 귀국하여 중앙학
림교수로 취임하였으나 시의에

“오늘은 마지막 짓지 말고 술
에 물만 붓고 끓여라.”
“마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사이 집꾼
들이 도착하였다. 백 박사가
보자마자 명령하였다.
“어서 그 석자를 풀어 공양주
에게 갖다 주라.”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 석자
속에 들은 것은 곱게 빻은 곡수
였다. 80여명의 대중이 곡수공
양을 하고나자, 이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졌다. 이승만 대통령
이 소문을 듣고 손 보살에게 물
었다.
“진짜 그분이 도통한 거요?”
“알 수 없습니다만 모든 사람
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어냈다.
“바라. 저쪽으로 준 물이 거기
서 그치지 않고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보시
야. 물결이 되었던지 정신이 되
었던지 이렇게 보시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진다.”
백 박사의 수행은 처음에는 <
대방광불화엄경> 염송으로 인
격을 완성하는데 몰두하였는데,
이것은 원효 대사의 <화엄경소
>를 보고 영향 받은 바 크다 하
였다.

백 박사의 수행은 처음에는 <
대방광불화엄경> 염송으로 인
격을 완성하는데 몰두하였는데,
이것은 원효 대사의 <화엄경소
>를 보고 영향 받은 바 크다 하
였다.
“대(大)’는 크고 넓어 끝이 없
는 것이고, ‘방(方)’은 바르고 바
른 것이며, ‘광(廣)’은 그 몸이 온
세계에 두루 퍼져 있고, ‘불
(佛)’은 이 ‘대·방·광’의 진리를
깨달아 의심이 없는 것이다. 그
러니 대방불의 빛으로 세상을
장엄한다면 이 세계가 불국토가
안되지요.”
그리고 백 박사는 ‘미륵존여
래’를 부르며 <금강경>을 외웠

東大 총장 취임후 직접 경전강의, 인재양성 ‘심혈’

미륵 10선 배우기 위해 ‘금강경’ 외며 “미륵존여래불”

맛지 않은 것을 알고 단신으로
금강산 안양암에 들어가 <대방
광불화엄경>을 제창하며 천일
기도를 하였다. 다시 지장암으로
 옮겨 8년 동안 기도하다가 일본
경찰의 압력으로 39년 돈암동
자택으로 돌아와 좌선수행에 매
진하였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번은 눈이 오는 날 기도하다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지게지고 삼거리
로 나가봐라.”
“눈이 필릴 내리는데 누가 온
다고 나가십니까?”
“잔소리 말고 가 봐.”

그래서 지계를 짊어지고 삼거
리로 나가니 서울에서 손 보살
님이라는 분이 석좌 두 개를 머
리에 이고 몸부림치며 걸어왔다.
두 사람이 그것을 받아지고 오
는 사이 공양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한 번 데리고 와 보
라구.”
그러하여 1950년 1월 이 대통
령을 만난 뒤, 2월에 내무부장관
에 임명되었다. 53년 8월 동국대
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서는
<금강삼매경론> <보살론> <화
엄경> 등을 강의하였는데, 1962
년 필자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
였을 때는 <금강경> 특강을 직
접 해주셨다.

“대학 총장이 새로 들어온 신
입생들에게 <금강경>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일찍이 없던 일이
다. 그러나 너희들은 금년부터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인재를 양
성코자 뽑은 장학생 43명 가운
데 불교과에 넣은 27명이나 나
 또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
다”
하시고 가지고 온 대야에 물을
붓고 두 손으로 물을 앞으로 밀

는데 이것은 정법구원의 한 방
편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상(我
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빠져 당과 싸
움을 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는 골육상쟁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륵성존의 10선(十善)
운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
던 것이다. 미륵부처님이 56억
7000만년 뒤에 탄생한다고 믿
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5선(前
五善)을 뒤집어 성소작지(成所
作智)를 이루고, 제6선을 뒤집
어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이루
며, 제7선을 뒤집어 평등성지
(平等性智)를 이루면 56억7000
만년이 당장에 그 몸속에서 이
루어져 제8아뢰야식에서 나타
난 대원경지(大圓鏡智)가 이 세
상을 둥근 거울처럼 비추게 된
다 설명하였다.

사)대한불교법화종 종도님께 알려드립니다 !!

5면 하단광고로 이어집니다

삼보에 귀의 합니다.

전법 정신으로 수고하시는 종도스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실을 전 종도님들께 알리고 종단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는 종도님들과 정화추진위원회의 모든 동참 스님들의 뜻을 모아 정의롭고 화안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총무부장(해암)이 교현사(해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무고 및 사기 고소 사건이 2008년 8월 25일자로 모두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이에 교현사(해가)는 총무부장(해암)을 무고 및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다시 성남지원에 고소하는 사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장(해암)은 그간 교현사와의 소송 및 고소사건 경비를 총무원장(해륜)이 일천만원 지원해 주어서 자신이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원장(해륜)은 임직원을 시켜 대리료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는 것인데 이는 곧 총무원장(해륜)이 한짓이니 적절한 절차를 거쳐 총무원장(해륜)도 무고 및 유언비어 유포 죄로 고소 할 것이라 교현사(해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로 자칭하는 총무원장이 그 임직원을 시켜 말사 주지를 무고하고 그 경비를 주었다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 겠지요.

또한 총무원장은 자신의 상좌(출가한지 2년여)를 교무국장으로 임명하고 교현사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먼저 써주고 불의를 일으키자 주지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총무원장 상좌(법명(홍선)백정현)는 그 주지 임명장과 위임장을 근거로 교현사에 2차례나 불법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교현사에서는 사수를 목적으로 용역회사에 부탁하여 인원을 동원하여 그 경비 및 손해금으로 15억여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홍선(백정현)은 그 주지임명장과 위임장으로 교현사 불사 공사를 준다는 조건으로 건설회사에 8억원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그 받은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 합니다.

이에 교현사는 그 손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무부장(해암)사할 무학사에 3억원, 김씨서 삼방동 도 사찰은 가입류한 상태이고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교현사(해가)는 앞으로 총무원 청사 및 종단명의로 사할 지방교구종무원을 가입류하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 임직원들(김용대,백정현,이상구,김영호,강계중,안승현,이재영,이일광,나영근)에게 유채동산 가입류 및 그 집행을 진행중에 있으며 곧 그 결과를 종도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는 승려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자신의 상좌를 교현사 전권을 준다는 위임장을 발부하고 주지 임명장까지 발부한 총무원장 및 임직원에 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단이 정상화되어도 총무원도 없고 종무원도 없고 살아야 할 빛더미만 남는다면 법화

종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사건이 이리할진대 중앙종회위원들은 총무원과 아합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및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동을 모른체 하고 2008년 8월 11일 홍국사에서 개최된 임시 중앙종의회에 안건으로 고지도 않된 참으로 기이한 종법을 만들었으며 총무원과 임직원은 종단을 걱정하고 애중심에 모여서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는 종도들을 해종행위자로 취급하여 등원요청을 수차례 해오며 처벌 할것이라 협박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정마저 총무원장의 그 같은 불법 패륜적 행동을 모른체하고 종도가 모여 종단 걱정하는 스님들을 해종행위자로 취급하여 엄벌하라는 교시를 근무일도 아닌 일요일(2008년7월27일)날 급히 내렸습니. 돌이켜 보건데 전 종정이었던 포항 극락사 해산스님이 종도에게 내렸던 교시가 일요일 날 이루어졌다 하여 불법이며 그 교시가 무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현 총무원장 해륜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화위원회는 더 이상 종정 및 중앙종회를 믿을 수 없기에 종정 및 중앙종회위원들은 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그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총무원장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조사 및 판결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작금에 애중하는 종도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처벌도 무효임을 천명하며 개정된 종법도 합법인지를 법원에 의의하여 마땅한 대책을 강구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8월 11일 홍국사에서 열었던 임시중앙종회가 합법하게 개최되고 종법이 개정 되었는지는 누구보다도 중앙종회 의원들이 잘 알고있고 또한 의제에도 고지되지 않은 종법을 개정한 것이 합법이 아니라면 전 중앙종회위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앙종회 위원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스님들이 해종행위자는 아닌지요. 종도의 입과 귀를 막고 앙심마저 자버리라는 종법 개정에 동참하였으니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서 법화종 종도에서 멀어질 것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명백한 종도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자신들에게는 길이 찢어 못할 추악한 행적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본 정화위원회 위원 및 오십여 사람 주지 및 대표의원 동참스님들은 꼭 정의로운 날이 올 것을 믿고 작금의 중앙종회 의원들의 행적을 심판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으나 지면으로 밝히기 너무나 부끄럽고 종도들에게 누가 되는 사실이 많아 그만 줄이겠습니다. 혹 궁금하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참담한 마음으로 종도에게 고하 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 하심을 부처님전에 발원 합니다.